

‘개교 40돌’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대한민국 대표하는 특성화 전문대학으로 飛上

올해로 개교 40주년을 맞은 부산과학기술대학교가 기술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직업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대학은 2016년과 2017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 사업)에서 잇따라 우수대학으로 평가돼 계속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은 교육부가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14년 도입했다.

40년 가까이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인재 양성에 매진해온 부산과학기술대학교는 지속적으로 공학과 인문 등 2개 계열 중심의 지역 전략산업 기반 융합형 휴먼테크 인재양성에 전력을 쏟을 방침이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

부산과학기술대학교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LINC+) 대학 육성사업(이하 LINC+)' 공모에서 최종 선정돼 5년간 95억 원(사업 신청액 기준)을 지원받게 된다.

LINC+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진행된 LINC 사업(산학협력 고도화형)과 신규 추진되는 '사회맞춤형 학과 활성화 사업'이 합쳐졌다.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으로는 최대 규모다. 전문대학이 교육공급자(학교·교수) 주도의 일방적 교육방식이 아닌 교육수요자(산업체) 요구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해당 산



강기성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총장

업체의 채용과 연계하는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는 총 10개 과정에 11개 학과가 참여하고 있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는 또 고용노동부의 2017년 대학일자리센터사업 대상으로 부산지역에서 유일하게 뽑혔다. 전국에서는 모두 20개 대학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지자체인 부산광역시, 대학의 대응투자 등 3개 기관에서 연간 총 6억원, 5년간 총 30억원으로 운영된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는 이에 앞서 지역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을 지원하고 중·강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동주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와 함께 3개 전문대학 컨소시엄을 구축했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는 주관대학으로서 서부산, 북부산권역의 공학계열 융합부품소재 산업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동주대학교와 부산여자대학교는 인문사회

계열 및 여대생을 위한 지식 인프라서비스산업 거점으로 지역 청년들에게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는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수행 기관으로 부산지역 전문대학 가운데 처음 선정됨으로써 전문대학 간 상생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청년 취업을 높이기 위해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일본 합동취업박람회 성황

부산과학기술대학교는 대학일자리센터의 첫 번째 협업사업으로 부산지방 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과 공동으로 지난 6월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첫 부산-일본 합동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현장 채용 면접, 선배 멘토 미팅, 일본취업 세미나, 일본취업 컨설팅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 행사에는 500여 명의 구직자가 참가했다. 특히 부산, 경상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충청, 전라 지역의 구직자들도 참가해 부산지역을 넘는 취업 박람회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현장 채용 면접에서는 일본 구인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사전 등록된 입사 지원서를 바탕으로 구직자와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총 260건의 면접이 이뤄졌다. 선배 멘토 미팅과 일본취업 세미나에선 일본취업 성공 후 국내 대기업에 재직 중인 선배취업자들이 나와 일본취업 노하우와 정보 및 기업 문화를 들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일본취업 컨설팅에서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컨설턴트들이 구직자들과 1대 1 상담 활동을 벌였다. 현장 채용 면접에서 합격한 구직자 가운데 어학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국내 및 일본에서 별도의 어학교육을 받은 뒤 최종적으로 해당 기업 확인을 거쳐 해외취업에 나서게 된다.

GSE 운영으로 세계화 교육에 앞장

부산과학기술대학교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의 하나로 외국인 유학생의 해외산업체 취업지원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은 해외산업체와의 협약 체결과 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

과정 개발 등을 통해 대학이 곧 현장이 되는 현장 맞춤형 교육인 GSE(Global Standard Education) 특별과정으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개설된 것이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 산업체를 발굴하고 해당 국가 유학생을 유치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한국어 및 전공지식을 겸비한 우수한 인력으로 키워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어학연수 1년 후 전공 2년 전문학사과정을 거치는 3년 과정으로 운영된다. 특히 전공영어 위주의 어학교육을 통해 전공 적응력을 갖추도록 지도하고 있다.

2년의 전공과정과 관련해선 교육부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GSE 별도 교육과정을 개발해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GSE 유학생으로는 자동차계열, 항공전자통신과, 호텔관광경영과, 경영과, 미용과 5개 학과(계열)에서 200명이 공부하고 있다. ㉠

